

편집국에서



김 기 현
편집국장

제주의 농업·농민들은 올해 월동채소의 잇따른 처리난·가격파동을 겪으면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농업·농민을 근간으로 세워진 농업의 존재이유를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양배추 양파에 이은 마늘까지 연세 제작물의 처리난·가격파동은 전례없는 사례다. 마늘을 보자. 올해산 제주마늘 전체 물량중 계약은 25%에 그치면서 종자용, 포전자래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처리가 중간상인들의 매입 기피로 처리대란을 겪었다. 올해 마늘처리 대란은 전대미문이라는데 농민들의 전언이다. 비계약농민들은 저장할 수 없는 마늘을

제주의 농업·농민, 그리고 농협을 다시 생각한다

수확직후 팔지못해 밭을 동동 굴렀고, 상인들은 농협 수매단가 kg당 3000원에서 한참 낮은 2500원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때까지 버티는 형국이였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지역농협별 비계약농가 마늘처리대책도 문제제시되었다. A농협은 계약농가만을 대상으로 계약물량의 30%를 추가 수매에 나섰고 B,C농협은 수매가에 차등을 두는 대신 비계약농가 물량 전량을 수매하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똑같은 조합원인데 이럴 수 있느냐는 불만에도 농협별 대책이 왜 이런 다르냐는 불만이 주류를 이뤘다. 또 농가들은 매년 농협계약을 하지 않아도 상인 등을 통한 유통처리에 문제가 없었고, 농협계약 기피도 피지 못할 사정(?)들이 있다고 강변했다. 농협측은 마늘계약기간을 늘리면서 독려했는데 계약하지 않은 건 농가책임으로 돌렸다. 반면 상인들은 “과잉생산으로 예

초 농협 수매가를 2700원선에 결정됐으면 자신들도 처음부터 매입에 들어가 처리 대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의 사전·사후 대책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양배추는 어떤가. 올 1~2월 수확기를 맞아 과잉생산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량 폭락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산지폐기라는 극약 처방을 발여야 했다. 양파도 마찬가지였다. 농협은 지난 3월 조생양파가격이 평년보다 30% 이상 떨어지자 산지폐기에 나섰고 5월이후 중만생양파가격도 계속 하락하자 수확후 밭에 방치된 물량들이 속출했다. 수 십년간 이어져 온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처리난·산지폐기 등은 예상되는데 사전 재배의향 조절이나 재배면적 정보 공유, 수확기 처리 대책 등에 새로운 시책은 눈짓고 찾아봐도 없다는게 농민들 불만이다.

농협의 고민도 이해된다. 과잉생산시마다 나름 노력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분명 농업·농민 현실은 위기다. 그럼에도 제주농협 본부장급 간부들이 행사장을 찾거나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후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농업·농촌관련 새로운 시책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제주 농가의 수익구조는 악화일로다. 최근 통계청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보고서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 도내 농가소득은 4863만원으로 전년보다 429만여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소득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11년이후 처음이다. 이제 농협은 존재이유를 더 강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협동조합의 역할 제고를 위한 새 시책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열린마당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



고 우 니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의 시작인 6월이 다가왔다.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한 번 부과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와 함께 부과된다. 또한, 1월·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놓쳤다면 하더라도 6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6월 연납을 신청하면,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의 10%가 할인돼 전체 연세액의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납 신청하고 절세 혜택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자동차세를 연납 후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 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수납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서귀포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상 계좌를 이용한 납부,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올해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되니, 잊지 말고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시 용역보고서 내용 함구로 빈축

“탐라대 부지에 체육단과대”

○…옛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으로 스포츠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국내외 체육단과대학 유치 필요성이 제안돼 눈길. 박호영 제주도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373회 의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옛 탐라대의 활용방안으로 지역 활성화와 접목된 대학 유치 필요성을 강조. 박 의원은 “국내외를 포함한 체육 단과대학 유치, 분교 유치까지 도전해 보는 다각도적인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 오은지기자

“외부노출차단 위해 공개 못해”

○…제주시가 문제부에 응모할 제주문화도시 조성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 제주시는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문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인 문화도시 신청을 앞두고 18일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으나 용역보고서 내용을 함구로 일관. 제주시 관계자는 “최종 보고회지만 사실상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외부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 고대로기자

제주농협, 양파 소비촉진 전개

○…제주농협이 국내산 양파의 과잉생산에 따른 도내 생산량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다양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 20일 농협에 따르면 올해 국내 양파 생산량은 132만t이며 이중 제주산은 1만t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한 반면 가격은 작년 대비 1kg당 411원으로 48% 급락. 농협은 전직원과 도청 공무원 대상 1인 1방 사주기 운동, 하나로마트 특판행사(6.26~7.2), 양파즙 시음 및 효능 홍보를 통한 판로 개척에 주력. 백국탁기자

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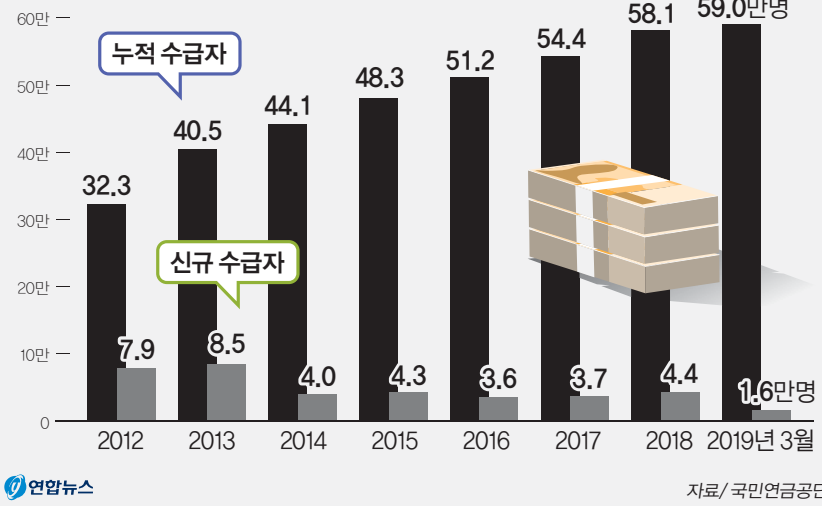
제2공항 개발 본격화, 갈등 해결이 과제

제주 제2공항의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현 제주공항은 ‘주공항’으로 하고, 제2공항은 ‘부공항’ 역할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로써 제2공항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을 일대 500만㎡ 규모로 짓기로 한 제2공항은 당초 정부 원안대로 건설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2공항은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항합니다. 가장 조미의 관심사인 제2공항과 제주공항간 역할분담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수행한 용역진은 현 공항이 국내선 50%와 국제선 100%를 전담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50%를 맡는 것을 최적의 대안으로 내놔했습니다. 특히 제2공항을 국내선 전용으로 건설하면 기존 공항의 경제권을 유지하고, 기존 공항 CIQ(세관·출입국 관리·검역) 시설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도민 70%가 거주하는 기존 공항 인근 주민의 국제선 이용 편리성 등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밖에 제2공항의

계류장과 터미널 등의 단계별 건설계획을 세워 국제선 취항에도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진은 제주도 전체 항공수요를 2055년이면 연간 이용객을 4109만명(사탑수 기준 2055만명·국내선 3796만명·국제선 313만명)으로 예측했습니다. 항공기 연간 운항횟수는 25만7000여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제2공항이 연간 이용객 1898만명, 운항횟수 11만7000회를 맡게 됩니다. 국토부는 23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후 오는 10월쯤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토지보상 등 제2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가 이날 열기로 했던 최종보고회도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5소위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놓고 갈등이 빚이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2공항이 ‘강정의 아픔’과 같은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갈등 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을 떠나 갈등을 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픽 뉴스

조기노령연금 누적·신규 수급자 추이



부 고

강경완(유전산업안전(주) 대표) 어머니
풍천임씨 춘자(향년 73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19일 11시 20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21일(금)
▶발인일시: 2019년 6월 22일(토)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 (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

아 들 강경완 며느리 임문아
강경목
딸 강경민 사 위 김희철
강정아 서승재

※ 연락처 : 강경완 010-6212-1561
강경목 010-8662-0831
강경민 010-2658-0888
중앙병원장례식장 721-1000

부 고

장시창(캐나다거주, 우성CANADA 대표)·시흠(우성농장 대표) 어머니
광산김씨 순정(향년 93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18일 23시 19분에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21일(금)
▶발인일시: 2019년 6월 22일(토)
오전 7시
▶발인장소: 한마음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실
▶장 차: 호근동 학수바위 뒤 선영

아 들 장시창 며느리 한경옥
시흠 김애숙
시은 홍순실
시성 한정선
영우 송경희
딸 장성자 사 위 홍상준
은하

※ 연락처 : 장시흠 010-2936-4233
장시은 010-5109-4233
장시성 010-5235-1149
장영우 010-5031-5996
장은하 010-8662-5996

부 고

한동석((주)동민엔지니어링 대표) 어머니
제주양씨 병옥(향년 85세)께서 서기
2019년 6월 20일 07시
39분경에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알려
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22일(토)
▶발인일시: 2019년 6월 23일(일)
오전 6시
▶발인장소: 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
1분향실
▶장 차: 양지공원→덕천리 산 91
(검은오름 동쪽)

아 들 한동석 며느리 부혜자
딸 한혜숙(증자) 사 위 김상용
신숙 설복준
영숙 김태완
매숙 배석한
선숙 양경원
광숙 이균휘

※ 연락처 : 한동석 010-3553-6361
김상용 010-8977-5732
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
064-783-6511

감사의 말씀

이번 제회 아버지 제주고공 두형(향년 89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 21일
부 인 아 들 며느리 딸 박 고 김 박 병준 최희영 박준경 김민숙 박수정 박수진 박수현

감사의 말씀

이번 제회 아버지 제주고공 영주(향년 9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 21일
아 들 고성림 며느리 양은심 성진 고옥순 옥림 사 위 한석기 김유언 김주열 김선식

감사의 말씀

이번 제회 어머니 연주현씨 복희(향년 8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 21일
아 들 강기욱 며느리 고순하 기호 김순자 기석 배지연 기철 임미영 기철 오수진 딸 강금진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대형병원 임상결과 1일 50선취 시뮬레이션 입증

농협 하나로마트
경계동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6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계분 판매합니다. (배 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